

한전, 광주·전남과 ‘상생의 축제’

28~29일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中企·상공인 등 200개 부스 참여 구매자 발굴 ‘빅몰’

에너지 밸리 조성 토론회·채용박람회·축하공연 등

한국전력의 최대 규모 행사인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이 28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글로벌+로컬) 창조경제 혁신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한전이 그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지역

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주요 이벤트로는 국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해 열리는 ‘빅몰’(Big Makk) 행사와 에너지 밸리 조성 대토론회, 에너지 밸리 기술원 설립 개소식, 시민을 위한 콘서트 및 채용박람회 등이 마련됐다.

빅몰 행사의 경우 그동안 국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해 열려왔으나 올해엔 행사

규모를 늘려 에너지 분야 제품 구매자를 위한 전시회와 상담회로 기획됐다. 중소 기업과 지자체, 연구기관, 지역 상공인 등 200개 부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에너지 밸리 조성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언론계, 지자체 등이 참여해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과 관련, 발전 방안과 역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보육 및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전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협약을 맺어 설립하는 에너지 밸리 기술원도 29일 개소식을 연다.

또 기능경기대회와 전력기술교육, 기술 수출 전략 세미나, 분야별 기술세미나, 에너지 밸리 투자설명회 등이 함께 열린다.

지역민의 참여를 위해 28일 오후 7시 축하공연과 함께 ‘빛가람 레이저쇼’도 준비됐으며 지역기업인 초대행사, 한전 배구단 사인회, 특성화 고교 채용박람회가 마련됐다.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중소기업,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에너지 밸리 거주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밸리를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창조경제 혁신 구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업 경영지원제도 확대와 더불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전의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병원·창업센터 입주

빛가람 병원·동신대 부지 낙찰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에 중대형 병원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맡게 될 창업보육센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25일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매각결과 나주의 빛가람병원이 1만4800여㎡ 규모의 병원 부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혁신도시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300병상급 병원 설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차원과 입주민들의 의료 환경에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또 동신대학교가 클러스터 내 부지 1만4500여㎡를 공급받았다고 발표했다. 동신대는 이 부지에 에너지밸리 조성과 관련한 일부 학교와 창업보육센터, 연구소 설립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빛가람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1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ng@

中 3곳에 전남농수산물식품 판매장 개설

전남도, 청두 이어 베이징·무단장시에 다음달 개설

중국 3곳에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식품 판매장이 상설 개설된다.

전남도는 25일 “중국 수출 전략상품 발굴과 농수산물식품 고정 판매를 위해 다음 달까지 중국 3곳에 ‘전남도 판매장’ 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판매장은 지난 4월 1일 쓰촨성 청두시에 개설됐고 베이징시와 하이퉁성성 무단장시 판매장은 다음 달 초 개설된다.

이들 판매장은 현지에서 유통업을 하는 바이어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식품을 직접 수입해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시식 및 홍보행사 등을 통해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판매를 확대하게 된다.

쓰촨성 청두시에 개설된 판매장에서는 유자차 등 전남지역 농수산물식품 39개 품목을 수입해서 한 달 동안 1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베이징시와 무단장시에 개설되는 판매장은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 구입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부터 운영된다.

전남도는 이들 판매장 운영을 통해 올해 2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고 일본, 미국 등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주력시장에 해외 판매장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미국은 19배로 소득 격차가 컸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5~6배로 소득 격차가 작았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3%만 갖고 있었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세계 여성운동가들 임진각 ‘평화 걷기’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만크로스디엔지’의 여성운동가들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민통선 철책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주도하는 ‘한반도 여성 평화걷기’ 행사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고 싶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행렬 앞쪽 가운데 선글라스를 쓴 이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연합뉴스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만크로스디엔지’의 여성운동가들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민통선 철책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주도하는 ‘한반도 여성 평화걷기’ 행사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고 싶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행렬 앞쪽 가운데 선글라스를 쓴 이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연합뉴스

무안공항 이용객 2만명 늘었다

무비자입국 환승공항 지정 효과…1~5월 전년보다 77% 급증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77%나 늘었다. 무비자 입국 환승공항 지정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와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무비자입국 환승공항 지정 이후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안공

항 입항편수는 341편으로 이용객 수는 4만5452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0편(2만5605명)과 비교하면 입항 편수는 111편(48%), 이용객 수는 1만9847명(77%) 각각 증가한 것이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2월부터 환승 관광공항으로 지정돼 120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른 중국 관광객 증가가 전제 이용객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

석됐다.

광주세관은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하자 지난달말부터 공항 휴대품 검색을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 연중 무휴의 여행자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군대 간 아들 공금하면 전화하세요”

국방부, 올 연말까지 수신용 전화 4만4686대 보급

“군에 복무 중인 자식 안부, 전화로 물어보세요.”

국방부는 지난 23일 부모가 군에 복무 중인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4만4686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완료되면 사실상 모든 병영생활관에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1대씩 보급된다. 일각에서는 10명 이상이 사용하는 생활관에 휴대전화 1대는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별 보급되는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는 육군 3만4191대, 해군 1395대, 공군 4622대, 해병대 2669대, 국방부 직할부대 1809대 등이다.

군에서 복무 중인 자식이 자신의 생활관에 보급된 휴대전화 번호를 부모에게 알려주면 부모는 부대 일과 시간 후 취침 이전까지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다.

수신 전용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이 전화로 전화를 걸 수 없다. 군 당국이 지난해 25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결과, 이용 실적을 이병→일병→상병→병장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들기 위해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를 보급했다”면서 “보급 대수를 더 늘릴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완공 전



완공 후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